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2.(목) 14:00 (2026. 11. 13.(금) 조간)

근로복지공단,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 개최

- 전국 노동자 5,532명, 문학·미술·가요·댄스 분야 참가 -
- 대통령상에 이나래 씨의 서예 작품「마음의 꽃」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예술제에는 전국 노동자 5,532명이 문학·미술·가요와 시범 운영한 댄스 분야에 참가해 작품과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 처음 열린 댄스제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연습한 춤을 무대에 올렸다. 참가자들이 호흡을 맞추며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청년 노동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공단은 올해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댄스제를 정규 종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서예 작품 이나래 씨의「마음의 꽃」에 돌아갔다. **“절제된 터치와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짜임새 있는 배치와 균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 없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문학부문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은 심야성 씨의「그리움, 추억의 사진첩을 남기며」가 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풀어내 독자의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요 부문에서는 뮤지컬「위키드」의 대표곡 ‘Defying Gravity’를 부른 김도경 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가요제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KBS를 통해 방송됐다.

노동자문화예술제는 노동자들이 창작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로, 198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매회 5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한다. 올해 수상작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은 “이번 예술제가 일하는 분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재능을 선보이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더 많은 노동자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복지사업국 복지계획부	책임자	부 장	김혜경	(052-704-7301)
		담당자	팀 장	임진균	(052-704-73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